



제 2019-154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노래방 업체, 저작권침해로 기소됨

마닐라사무소

■ 배경

- 지난 10월 22일, 동자바 지방경찰청(Polda Jawa Timur)은 기자회견에서 ‘주식회사 라사 사양(PT Rasa Sayang, RS)’이 음반 제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노래를 사용한 저작권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 동자바 지방경찰청의 프란스 바룅 망으라(Frans Barung Mangera) 청장은 음반 제작사가 수라바야(Surabaya)의 잘란 마이젠 송꼬노(Jalan Mayjen Sungkono)에 위치한 노래방 업체인 ‘라사 사양’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고 밝힘
 - 바룅 청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17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설명
- 동자바 지방경찰청 특별범죄수사국 아끄마드 유셉 구나완(Akhmad Yusep Gunawan) 국장은 “음반 제작사 ‘에보니 들라뻘 블라스(PT Ebony Delapan Belas)’가 해당 노래방에서 자신들의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부는 해당 사건을 2018년 7월부터 조사하였다.”라고 말함



- ‘에보니 들라뻘 블라스’는 회사에서 제작한 노래 두 곡 ‘디냐니칸 수퍼걸리스 (Dinyanyikan Supergirlies)’ 및 ‘아유니아(Ayunia)’의 음원 사용료에 대해 해당 업체에 통보하였으나 ‘라사 사얏’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 경고장을 2회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도 ‘라사 사얏’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인 ASIRINDO를 통해 해당 업체를 고발함
- ASIRINDO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음반의 상업적 사용 및 활동에 대해 음반 회사와 프로듀서들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임
- 한편 ‘라사 사얏’ 노래방 측의 무응답으로 인해 동자바 경찰청 하위국 상공부(Subdit I Indagsi Ditreskrimsus Polda Jatim) 수사관이 해당 업체를 피의자로 기소함
- 음악가 아낭 헤르만샤(Anang Hermansyah)는 “인도네시아의 음악가들 대부분이 음악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7,000여 개 노래방 중 다수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이 인도네시아 전체에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말함
- 음악가 아낭 외에도 17명의 음악가가 동자바 경찰청을 방문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할 것을 표명함
- 동자바 경찰청에 고소·고발된 저작권침해 업체 수는 총 4개이며, 이 중, 3건은 사용료 지급 또는 음악의 상업적 사용 허가를 취득하여 합의에 도달함

■ 평가

-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련 부서와 음악가, 음악 제작자 모두 음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관심과 대중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 음원의 합법적 저작권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출처

- <https://www.jawapos.com/surabaya/23/10/2019/putar-lagu-tanpa-izin-rumah-karaoke-jadi-tersangka-hak-cipta/?amp>
- <https://jatim.suara.com/read/2019/10/23/005500/ungkap-kasus-hak-cipta-sejumlah-musisi-dukung-penindakan-polda-jatim>